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9. 4. 29.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	담당자	과장 황윤언, 사무관 문병철 ·☎ (044) 201-3337, 3342	
	금융위원회 은행과	담당자	과장 전요섭, 사무관 이수암 ·☎ (02) 2100-2910, 2676	
	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	담당자	처장 유은철, 부장 박영래 ·☎ (02) 550-9050, 9051	
	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	담당자	부장 정대성, 팀장 박남수 ·☎ (02) 531-1700, 1790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위하여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.

- 정부는 작년 ‘주택시장 안정대책(9.13 부동산대책)’에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-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‘19.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.
-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운영을 위해 당첨자정보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금결원으로부터 이미 이관받고 있으며,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- 아울러,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 조사, 금융정보 취급*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, 금융위는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
- * 금융실명법 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에서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의 예외를 신설

□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은 양 기관 간에 청약시스템 관리업무가 원활히 이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국민일보, 4.29) >

◆ “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”

- 청약업무 이관작업이 정보 공유에 대한 금결원, 감정원간 갈등으로 중단, 중재해야 할 국토부, 금융위도 갈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3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